

#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적응

## Adolescents' Perception about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Friendship and Their Adjustment to School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조 교수 李玩定

인하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인명여고 교사

석사과정 李恩榮

Dept. of Consumer, Child, & Family Studies Inha Univ.

Assitant Prof. : Wanjeong, Lee

Divis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ha Univ.

MS Program : Eunyoung, Lee

###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 to investigate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function of friendship perceived by adolescents, secon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se two functions by adolescents' gender and grade, and third, to evaluate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according to the positive - and the negative function of friendship. For these purposes, an empirical survey data was gathered from 988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in Incheon city. Three factors of the positive function and three other factors of the negative function of friendship were constructed as results of factor analyses. These six factors were correlated one another an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dolescents' gender and grade. Lastly,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positive function of friendship.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청소년이 가정 바깥에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로부터 개인적 자율감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Coleman(1978)의 초점이론(focal theory)에 의하면 약 15 ~ 16세 경에 동년배의 영향력은 최고조에 달하는데, 청소년기의 교우관계에는 아동기의 교우관계를 특징짓는 빈번한 상호작용과 상호 좋아하는 감정 등의 요소외에도, 헌신감이나 공평성 등 아동기의 교우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Berndt & Perry, 1990).

청소년은 교우관계를 통해 지지감과 안정감을 얻고, 비공식적이지만 중요하게 인식되는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제공받으며, 자신의 행동 표준을 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할수행의 기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받는다(장휘숙, 1996). 하지만 교우관계의 형성 및 발달은 항상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내에서의 갈등과 유혹, 그리고 편중된 권력구조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으로 나타날수도 있다. Rowlins(1994)는 청소년기 우정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역동성'을 들고, 공격대 사적 영역, 이상적 대 현실적 관계, 의존성과 독립성, 수용성과 비판성 등과 같은 대립적 특성이 공존하는 청소년기 교우관계를 변증법적 이론틀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특히, 학교나 학원 등 가정의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생활에 있어서도 입시준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대부분의 시간과 장소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 심리적 위안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기 우정의 역동적 특성상 이들의 교우관계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친밀한 소속감외에도, 때로 친구와의 갈등, 무리지움(clique)에서 제외된대 따른 소외감이나 고독감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청소년기 교우관계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과정은 잘 극복될 경우 보다 건강한 우정 관계를 발전시키

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일 수 있지만, 청소년이 이에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김희경, 1990; 김형태, 1991), 학교 생활에의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Mounts & Steinberg, 1995). 따라서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과 두 측면의 내적 특성 및 이들 특성이 청소년의 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규명해 보고, 이 변인들이 청소년의 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표는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요인을 구성하고, 둘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른지 알아보며, 셋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따라 학교생활에의 적응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 교우 관계의 특성과 이론 : 우정의 변증법

청소년기 우정의 역동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Rawlins(1994)는 변증법적 이론틀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기 교우관계는 연루된 청소년들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다른 또래, 학교 및 지역사회 등 청소년들과 연결된 여러 단위들의 영향아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Rawlins에 의하면, 이렇게 다양한 맥락하에서 전개되는 청소년기의 우정은 변증법적 이론틀의 기본 요소인 총체성, 대립성, 운동성 및 변화 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교우관계가 발생하고 전개되는 장소의 '맥락적 측면(contextual dialectics)'에서 보자면, 우선 청소년기의 교우관계에는 공격 영역과 사적 영역이 공존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 교우관계는 가족이나 친

족과 같이 혈연관계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공적인 관계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긴장과 역동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 교우관계는 자발적으로 시작되고, 사적인 관계이며, 공평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정서적 유대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관계이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상호작용으로 구현될 때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약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이 관계가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닌 매우 현실적인 관계라는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교우관계가 전개되는 '상호작용적 측면(interactional dialectics)'에서 보자면 청소년기 우정의 변증적 특성이 더욱 잘 드러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또래와 교우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끊임없이 서로 의존하려는 동시에 상대에게서 독립하려는 욕구가 있고, 상대에게 애정을 주고 또한 받기를 희망하면서도 때로는 상대를 도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비판의 대상으로 보다가도 때로는 무조건 수용해 주는 등 계속적인 변화와 운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결국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총체성은 그 내면의 미묘한 갈등과 역동성, 그리고 끊임없는 운동성으로 특징지어지며, 따라서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대립성을 규명해내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기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청소년기 교우관계에서는 헌신, 안정감, 배려 등의 긍정적 측면과 갈등, 유혹에의 동조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면서, 교우관계의 단계적 수준과 환경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때로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역동적 특성을 노정시킨다.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특징적 요소를 규명하고 이 요소들이 발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어느정도 있는 편이나, 청소년기 우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역동성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해내기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Bukowski, Boivin과 Hoza(1994)는 청소년기 우정의 질적 특성으로 연대감, 조력감, 안정감, 친밀함, 갈등의 5가지 요소를 들었고, Parker와 Asher(1993)는 이외에 친밀한 교환, 보호감, 배신감의 요인을 지적하였으며, Furman과 Adler(1982)는 우정의 특성으로 16가지 요소를 구성해 냈는데, 이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의 특성에는 모두 우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해 있다. 국내에서 행해진 우정개념 발달에 대한 연구(김형태, 1991)에서는 청소년기 우정의 특징적 요소로 근접성, 서로 좋아함, 이타주의, 충성과 헌신 등을 들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우관계 발달에서는 '감정이입적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나, 우정의 긍정적 특징만을 연구함으로써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역동적 특징을 간과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Berndt와 그의 동료들은 일련의 연구(Berndt & Hawkins, 1992; Berndt, Hawkins, & Hoyle, 1986; Berndt & Keefe, 1992; Berndt & Miller, 1992; Berndt & Perry, 1986)를 통하여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긍정적 측면으로 자기표현, 친사회적 행동, 자아존중감 증진 등을 들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갈등과 경쟁의식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Ma, Shek, Cheung과 Lee(1996)는 홍콩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우 관계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교우 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반사회적 행동이나 낮은 성적수준 등과 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지나치게 연결시켰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행해진 청소년기 우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나마 교우관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별시켜 규명하려고 시도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 3. 청소년기 우정과 관련변인

청소년기에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건강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고,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

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문제행동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또래들에게 잘 수용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친사회적 행동 특성과 같은 사회인지 능력이 우수하다(Wentzel & Erdley, 1993). 그리고 부모와 동성의 친구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청소년의 자아감은 증진되며(Blyth & Traeger, 1988; Dekovic & Meeus, 1997), 학교성적이 높고 마약사용과 같은 문제행동을 덜 일으킨다(Mounts & Steinberg, 1995).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교우 관계가 긍정적이고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김희경, 1990), 자아개념이 낮은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유혹에 쉽게 동조하여 패싸움, 컨닝, 음란비디오 관람 등의 비행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하연, 1991). 결국 청소년기 우정에 대한 관련연구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여러 가지 특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년기 우정의 역동적 측면을 규명해내고 각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바 없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 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 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따라 학교 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조사에 앞서 1998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 까지 연구자가 근무하는 1여고 1학년 104명, 2학년 107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 대해 함께 토론한 후 각자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진솔하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내용과 선행 관련연구의 척도를 바탕으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다시 1여고의 다른 1, 2학년 학생 각 52명에게 두 번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중·고등학교의 일반적 학업수준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에서 6개 학교를 유의표집하였다. 표집된 학교는 남녀공학인 중학교 2개교, 여자 고등학교 2개교 및 남자 고등학교 2개교로 구성되었으며, 각 학교당 200명씩 총 1,200명의 학생에게 1998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질문지가운데 1,119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 131부를 제외시켜 총 988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서 분석대상이 된 988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460명(46.6%), 여학생이 528명(53.4%)이었다. 학년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이 339명(34.3%), 고등학교 1학년이 238명(24.1%), 고등학교 2학년이 411명(41.6%)이었다.

#### 3. 측정도구의 구성

1)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국내 측정도구는 전무하며 국외의 측정도구도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정의 순기능과 역

기능의 역동적 측면을 척도문항에 반영해 내기 위하여, 연구진은 선행 관련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내용을 토대로 기초 문항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여기서 얻은 문항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먼저 예비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응답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문항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하고 구어체 문형은 문어체 문형으로 수정한 후, 그 다음 순서로 이 문항들의 내용을 관련 선행연구들(김형태, 1991; Berndt & Hawkins, 1992; Berndt, Hawkins, & Hoyle, 1986; Berndt & Keefe, 1992; Berndt & Miller, 1992; Berndt & Perry, 1986; Bukowski, Boivin, & Hoza, 1994; Parker & Asher, 1993; Furman & Adler, 1982)의 우정에 대한 척도 내용과 차례로 비교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우정의 순기능에 대하여 14문항, 역기능에 대하여 14문항 등 총 28문항의 설문도구를 작성하였다.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 조사를 할 때 같은 학교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3명만 적게한 후<sup>1)</sup>, 응답자로 하여금 이 친구들 각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바에 따라 우정의 기능에 대한 각 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마다 이 3명의 친구들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하여 최종 순기능 점수와 역기능 점수를 얻었으며, 이러한 점수 계산 방식에 따라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각 요인별 평균 점수의 분포는 3점부터 15점까지 분포된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988부의 자료에 대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이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공히 부하량이 높은 3문항을 제외하고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각각 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표 1〉과 〈표 2〉참조).

〈표 1〉을 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은

‘정서적 안정’의 순기능(6문항), ‘인지적 조력’의 순기능(5문항),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해주는 순기능(2문항)의 세 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80, .79, .43이었으며 우정의 순기능 총평균에 대한 신뢰도는 .86이었다. 〈표 2〉를 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역기능은 ‘일탈행동 요구’의 역기능(6문항), ‘심리적 구속감’을 주는 역기능(4문항), ‘경쟁심 유발’의 역기능(2문항)의 세 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64, .56, .59였으며, 우정의 역기능 총평균에 대한 신뢰도는 .70이었다.

## 2)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척도는 김정환(1981)의 ‘학교 관련 태도’ 측정도구, 이상필(1990)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 김홍재(1994)의 ‘학교생활 적응’ 측정도구, 조정숙(1995)의 ‘학교생활 적응’ 측정도구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학교 생활 적응 척도는 ‘학습활동’, ‘교우관계’, ‘학교행사 참여’의 3개 영역에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내용이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안면타당도를 거친 후 설문도구로 작성하였다. 적응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각 요인별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된다.

조사결과 얻어진 988부의 자료를 토대로 기존 연구의 요인들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varimax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이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공히 부하량이 높은 1문항을 제외시킨 후, 3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표 3〉을 보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대한 하위요인은 ‘학습활동’ 적응(4문항), ‘발표력’(3문항), ‘교우관계’ 적응(4문항)의 세 요인 총 11문항으로 나타나 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67, .64, .45였으며, 적응의 총평균에 대한 신뢰도는 .69였다.

1) 같은 학교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3명까지 적지 못한 학생은 131명이었는데, 이들의 경우 친구와의 우정관계에 대한 지각이 다를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료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1〉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n = 988)

요인명	항목의 내용	요인부하량			Cronbach $\alpha$ 값
요인 1 : 정서적 안정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72	.24	.09	.8052
	나를 도와주려 노력함	.70	.38	.08	
	대화가 잘 통함	.70	.18	.0	
	같이 어울려 줌	.67	.10	.20	
	정서적인 안정감을 줌	.62	.14	.22	
	상담자 역할을 해 줌	.55	.30	.20	
요인 2 : 인지적 조절	친구에게 배울점이 많음	.14	.78	.12	.7979
	정보를 얻을수 있음	.29	.72	.0	
	부족한 것을 얻을수 있음	.37	.69	.08	
	정확한 판단을 해 줌	.47	.57	.10	
	시험공부에 도움이 됨	.10	.57	.36	
요인 3 : 학교생활 원만	학교준비물을 빌릴수 있음	.18	.0	.82	.4343
	학교생활이 즐거움	.15	.32	.66	
고유치(Eigenvalue)		5.25	1.10	1.06	7.41
분산 설명력(%)		40.37	8.46	8.16	56.99

〈표 2〉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역기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n = 988)

요인명	항목의 내용	요인부하량			Cronbach $\alpha$ 값
요인 1 : 일탈행동 요구	호기심을 부추김	.61	.0	-.1	.6137
	생활패턴이 흐트러짐	.61	.0	.25	
	내가 싫어하는 것을 요구함	.57	.13	.15	
	관계가 부담스러움	.57	.0	.31	
	다른 친구들에 악영향을 줌	.54	.31	-.1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짐	.45	.29	.12	
요인 2 : 심리적 구속감	질투심이 생김	.02	.76	.20	.5652
	조바심이 생김	.11	.68	.10	
	학업에 방해가 됨	.0	.61	.12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음	.25	.47	-.1	
요인 3 : 경쟁심 유발	경쟁의식이 생김	.11	.04	.81	.5909
	열등감을 느낌	.18	.27	.74	
고유치(Eigenvalue)		2.93	1.38	1.14	5.45
분산 설명력(%)		24.37	11.46	9.45	45.28

〈표 3〉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n = 988)

요인명	항목의 내용	요인부하량			Cronbach $\alpha$ 값
요인 1 : 학업활동	예습과 복습을 반드시 함	.78	.16	.0	.6719
	공부시간의 공부내용 중요함	.71	.02	.18	
	숙제와 학습준비를 해 음	.70	.13	.0	
	공부는 매일 꾸준히 함	.60	.18	.11	
요인 2 : 발표력	공부시간에 잘 발표함	.20	.75	.02	.6466
	회의시 내 의견이 반영됨	.23	.73	.10	
	내 장점을 표현할 기회 많음	.04	.70	.20	
요인 3 : 교우관계	친구를 방해하지 않음	.20	-.1	.69	.4580
	급우에게 준비물을 빌려줌	-.2	.25	.62	
	친구와 다툰후 먼저 사과함	.0	.18	.58	
	특별활동 시간이 즐거움	.17	.06	.54	
고유치(Eigenvalue)		2.83	1.48	1.18	5.49
분산 설명력(%)		25.74	13.47	10.71	49.92

4. 분석방법

본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SPSS-pc program 을 이용하였는데,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 적응에 대한 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지각 및 학교 적응에 대한 차이는 t 검증, F 검증 및 scheffé 추후검증으로 알아보았고,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상관은 피어슨의 상관계수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따른 학교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점수를  $M \pm \frac{1}{2}sd$ 를 중심으로 나누어 중집단은 제외하고 상집단과 하집단의 두 집단을 선택하여 두 집단간에 학교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으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우정의 순기능 총평균지각과 역기능 총평균지각의 상, 하집단을 각각이 높고 낮은 4가지로 조합하여 각 집단별로 학교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F 검증 및

scheffé 추후검증으로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지각 및 학교 적응

〈표 4〉에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 적응에 대한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정의 순기능 점수는 공히 역기능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에 대한 세 가지 하위요인 및 순기능 총평균은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한 친구와의 교우관계에서 ‘정서적 안정’을 많이 얻고(여학생 평균 = 12.05점, 남학생 평균 = 11.32점), ‘인지적 조력’을 많이 받으며(여학생 평균 = 10.53점, 남학생 평균 = 10.14점),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힘을 얻는다(여학생 평균 = 12.16점, 남학생 평균 = 11.31점)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여학생(평균 11.48점)이 교우관계에서 지각하는 순기능

〈표 4〉 성별에 따른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지각 및 학교 적응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								
요인	정서적 안정		인지적 조력		학교생활 원만		순기능 총 평균	
성별	M(sd)	t값	M(sd)	t값	M(sd)	t값	M(sd)	t값
남	11.32(2.0)		10.14(2.3)	-2.75*	11.31(2.8)	-5.02*	10.86(1.9)	
여	12.05(1.7)	-6.04***	10.53(2.0)		12.16(2.5)		11.48(1.6)	-5.46**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역기능								
요인	일탈행동 요구		심리적 구속감		경쟁심 유발		역기능 총 평균	
성별	M(sd)	t값	M(sd)	t값	M(sd)	t값	M(sd)	t값
남	5.66(1.8)		7.31(2.4)	-7.87***	7.54(2.9)	-1.22	6.52(1.7)	
여	5.16(1.6)	4.39*	8.55(2.5)		7.77(2.8)		6.73(1.5)	-1.97
청소년의 학교 적응								
요인	학업활동		발표력		교우관계		적응 총 평균	
성별	M(sd)	t값	M(sd)	t값	M(sd)	t값	M(sd)	t값
남	2.48(0.7)		2.54(0.8)	.531	3.61(0.7)	-3.74***	2.91(0.5)	
여	2.49(0.7)	-2.77	2.51(0.6)		3.77(0.1)		2.97(0.4)	-1.719

\* p &lt; .05, \*\* p &lt; .01, \*\*\* p &lt; .001

의 총평균은 남학생(평균 10.8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비교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역기능은 하위요인에 따라 상이한 성차가 나타났다. 친한 친구와의 교우관계에서 친구들이 '일탈행동을 요구'하는 역기능은 여학생(평균 5.16점)보다 남학생(평균 5.66점)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심리적 구속감'을 느끼게 되는 역기능은 여학생(평균 8.55점)이 남학생(평균 7.31점)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은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교우관계' 하위요인에서는 여학생(평균 3.77점)이 남학생(평균 3.61점)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 남학생보다 다양한 순기능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위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학년에 따른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지각 및 학교 적응

학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 적응에 대한 차이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이 친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 지각한 순기능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조력'을 얻는다고 지각하는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평균 10.6점)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평균 10.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친한 친구들이 있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역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평균 12.1점)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평균 11.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평균 11.4점)이 교우관계에서 지각하는 순기능의 총



〈표 5〉 학년에 따른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지각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												
요인	정서적 안정			인지적 조력			학교생활 원만			순기능 총평균		
학년	M(sd)	scheffé	F값	M(sd)	scheffé	F값	M(sd)	scheffé	F값	M(sd)	scheffé	F값
중3	11.6(1.9)			10.3(2.3)	ab		11.6(2.8)			11.1(1.9)	ab	
고1	11.9(1.8)		1.94	10.6(2.0)	a	3.81*	12.1(2.4)		3.54*	11.4(1.7)	a	3.73*
고2	11.6(1.9)			10.1(2.1)	b		11.6(2.6)			11.0(1.7)	b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역기능												
요인	일탈행동 요구			심리적 구속감			경쟁심 유발			역기능 총평균		
학년	M(sd)	scheffé	F값	M(sd)	scheffé	F값	M(sd)	scheffé	F값	M(sd)	scheffé	F값
중3	5.28(1.7)			7.68(2.5)	a		7.42(2.9)			6.44(1.6)	a	
고1	5.35(1.8)		1.54	8.37(2.5)	b	5.16**	7.98(2.8)		2.65	6.81(1.6)	b	3.91*
고2	5.51(1.7)			7.98(2.4)	ab		7.68(2.7)			6.69(1.6)	ab	

\* p < .05, \*\* p < .01,

ab는 Scheffé표시임. 동일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참고) 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표 제시를 생략함.

평균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평균 11.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비교하여 청소년이 친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 지각한 역기능의 하위영역에서는 ‘심리적 구속감’ 영역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평균 8.37점)은 중학교 3학년 학생(평균 7.68점)보다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 ‘심리적 구속감’을 느끼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평균 6.81점)이 교우관계에서 지각하는 역기능의 총평균

은 중학교 3학년 학생(평균 6.44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3.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간의 상관관계

〈표 6〉에는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에 대한 하위요인과 역기능에 대한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 총평균과 우정의 역기능 총평균간에는 유의

〈표 6〉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간의 상관관계

(n=988)

역기능 \ 순기능	정서적 안정	인지적 조력	학교생활 원만	순기능 총평균
일탈행동 요구	-.053	-.005	-.010	-.33
심리적 구속감	.205***	.248***	.138***	.251***
경쟁심 유발	.035	.167***	.089**	.114***
역기능 총평균	.088**	.174***	.093**	.146***

\*\* p < .01, \*\*\* p < .001

한 정적 상관( $r_{값} = .146, P < .000$ )이 있어, 청소년들은 친한 친구와의 교우관계에서 순기능을 높게 지각할수록 역기능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역기능 하위요인 중 '일탈행동 요구'를 제외한 그의 우정의 역기능에 대한 다른 하위요인들은 대부분 우정의 순기능에 대한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중 특히 우정의 순기능에 대한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역기능의 하위요인은 '심리적 구속감'이었다.

4.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 적응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 적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점수를  $M \pm \frac{1}{2}sd$ 를 중심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중집단을 제외한 후 상·하 두 집단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점수를 알아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친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 순기능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은 이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다고 역기능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학교 적응을 더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 적응

우정의 기능		학교 적응		학업활동		발표력		교우관계		적응 총평균	
		요인	하위집단	n	M(sd)	t값	M(sd)	t값	M(sd)	t값	M(sd)
순기능	정서적 안정	낮은집단	311	2.52(.7)	1.8	2.77(.7)	8.4***	3.94(.6)	8.6***	3.10(.4)	8.2***
		높은집단	272	2.40(.7)		2.25(.7)		3.48(.6)		2.76(.5)	
	인지적 조력	낮은집단	309	2.59(.7)	3.5***	2.72(.7)	7.9***	3.90(.6)	7.4***	2.75(.5)	8.4***
		높은집단	288	2.37(.7)		2.25(.7)		3.50(.6)		3.10(.5)	
학교생활 원만	낮은집단	334	2.60(.7)	4.8***	2.21(.7)	8.5***	3.90(.6)	8.0***	3.11(.4)	10.0***	
	높은집단	232	2.30(.7)		2.74(.6)		3.45(.6)		2.70(.5)		
순기능 총평균		낮은집단	315	2.57(.7)	4.0***	2.79(.7)	9.7***	3.96(.6)	9.5***	3.13(.4)	10.2***
		높은집단	274	2.32(.7)		2.21(.7)		3.45(.6)		2.70(.5)	
역기능	일탈행동 요구	낮은집단	286	2.47(.7)	-3	2.56(.7)	1.2	3.63(.6)	-1.5	2.92(.4)	-.5
		높은집단	379	2.50(.7)		2.49(.7)		3.71(.6)		2.94(.5)	
	심리적 구속감	낮은집단	312	2.48(.7)	-2	2.51(.7)	.1	3.81(.6)	3.1**	2.97(.4)	1.3
		높은집단	315	2.50(.7)		2.51(.7)		3.64(.7)		2.91(.5)	
	경쟁심 유발	낮은집단	284	2.53(.7)	1.9	2.54(.7)	-1	3.72(.5)	-.4	2.97(.4)	.8
		높은집단	342	2.41(.7)		2.55(.7)		3.75(.7)		2.93(.5)	
역기능 총평균		낮은집단	309	2.52(.7)	.6	2.58(.7)	1.0	3.74(.6)	1.1	2.99(.4)	1.3
		높은집단	331	2.48(.7)		2.52(.7)		3.68(.7)		2.93(.5)	

\*\*  $p < .01$ , \*\*\*  $p < .001$

참고) 사례수 n은 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업활동에 대한 것임. 나머지 요인에서의 사례수는 약간씩(2 ~ 4명) 차이가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 '정서적 안정', '인지적 조력', '학교생활 원만'의 순기능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이를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보다 '학업활동', '발표력', '교우관계' 등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정의 역기능 부분에서는 한 하위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친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 '심리적 구속감'을 적게 느끼는 청소년은 이를 많이 느끼는 청소년보다 '교우관계'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우정의 역기능에 대한 하위영역에서는 이를 적게 지각하는 청소년이 이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 보다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지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정의 순기능 총평균 지각과 역기능 총평균 지각의 상, 하집단을 각각 높고 낮은 4집단으로 조합하여 집단별로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가 아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학업활동' 적응은, 우정의 순기능 총평균 지각은 높고 역기능 총평균 지각은 낮은 집단(평균 2.64)이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총평균 지각이 모두 낮은 집단(평균 2.2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에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발표력', '교우관계' 부분과

'적응 총평균'에서는 역기능의 높고 낮음과는 관계 없이 공히 순기능 지각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역기능 지각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적응 점수를 나타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규명해 보고,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이들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 및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우정의 순기능은 '정서적 안정', '인지적 조력', '학교생활 원만'의 세 요인으로, 우정의 역기능은 '일탈행동 요구', '심리적 구속감', '경쟁심 유발'의 세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정의 순기능 중 '정서적 안정', '학교생활 원만'의 하위요인, 우정의 역기능 중 '일탈행동 요

<표 8> 우정의 순기능 총평균 지각과 역기능 총평균 지각의 조합에 따른 학교적응

학교적응 순기능과 역기능		n	학업활동		발표력		교우관계		적응 총평균	
			M (sd)	F값	M (sd)	F값	M (sd)	F값	M (sd)	F값
조 합	순기능 낮고, 역기능 낮은 집단	109	2.27 a (.84)	5.01**	2.18 a (.78)	26.15***	3.37 a (.73)	22.76***	3.37 a (.73)	26.94***
	순기능 높고, 역기능 낮은 집단	108	2.64 b (.78)		2.88 b (.70)		3.98 b (.63)		3.98 b (.63)	
	순기능 낮고, 역기능 높은 집단	65	2.54 ab (.76)		2.19 a (.76)		3.57 a (.62)		3.57 a (.61)	
	순기능 높고, 역기능 높은 집단	111	2.46 ab (.79)		2.82 b (.72)		3.74 b (.70)		3.74 b (.71)	

\*\* p < .01, \*\*\* p < .001

ab는 Scheffé표시임. 동일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참고) 사례수 n은 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업활동에 대한 것임. 나머지 요인에서의 사례수는 1 ~ 2명 정도 차이가 있음.

구', '경쟁심 유발'의 하위요인은 Berndt와 그의 동료들의 일련의 연구들(1986; 1992)이나 Bukowski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4), 그리고 Ma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6)에서 지적된 '친밀감', '도와주기', '경쟁심', '문제행동에의 유혹' 등의 요인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하여 우정의 순기능 중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거나 정보를 주는 내용의 '인지적 조력' 요인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우정의 역기능 중 '심리적 구속감' 요인은 교우관계가 일시적으로 소원해지거나 원만하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질투심이나 조바심이 생겨 학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인데, 선행 연구들에서는 정확하게 지적되지 않은 특징으로서 청소년, 특히 여학생들이 교우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심리적 부담감을 잘 드러내주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일련의 선행연구(Berndt & Keefe, 1992; Berndt & Miller, 1992; Ma, Shek, Cheung, & Lee, 1997)와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교우관계에서 느껴지는 역기능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일탈행동을 요구'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반면에 여학생은 친구들에게 '심리적 구속감'을 느끼는 것을 교우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의 부정적 영향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Ma와 그의 동료들(1997)의 연구결과는 있었으나, 여학생들이 지각하는 우정의 부정적 측면을 남학생과 비교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우정이나 교우관계에서 지각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규명해 내었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보다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즉 고등학교 1학년 학

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보다 우정의 순기능을 더 높게 지각하는 반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보다 우정의 역기능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정개념 발달에 대한 김형태(1991)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정관계의 특징이 근접성과 공유활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황적 단계'로 보는 수준에서 이타주의 차원으로 특징지어지는 '계약적 단계'나 더 나아가 내적, 심리적 특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감정이입적 단계'로 보는 수준으로 발달해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우정의 역기능과 순기능 모두 비교집단 보다 높게 지각되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중학교 3학년의 시기와 비교하여 우정 단계의 질적 발달이 보다 현저하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우정에 대한 지각도 상대적으로 보다 역동적인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우정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안정되면서 친구와의 교우관계에서 느끼는 순기능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다 낮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 하위요인과 역기능 하위요인 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정의 역기능 요인 중 '심리적 구속감' 요인은 우정의 순기능 하위요인들과 뚜렷한 정적 상관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우관계에서 심리적 구속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우관계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앞의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교우관계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을 지각할수록 동시에 그 관계에 현신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심리적 구속감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따른 학교 적응을 보면, 우정의 순기능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의 청소년은 이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의 청소년보다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 총평균 지각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그리고 역기능 총

평균 지각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경우를 각각 조합한 4집단의 성향을 살펴보면, 우정의 역기능 지각의 높고 낮음과는 관계없이, 우정의 순기능 지각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공히 학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정의 긍정적 측면을 더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고(Berndt & Keefe, 1992),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Berndt & Miller, 1992)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위와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의 우정에는 이상과 현실, 조화와 갈등, 독립성과 의존성 등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역동성과 활동성을 갖는 변증법적 특성이 있다는 Rowllins(1994)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된다. 즉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순기능 뿐 만 아니라 역기능도 함께 지각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교우관계의 국면에 따라 두 대립되는 측면 중 어느 한 쪽의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결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정의 이러한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인 특성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건강한 발달을 추구할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6가지 하위요인들은 1,000명에 가까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개발단계라 이 하위요인들의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척도의 정교화를 위한 추후 연구가 계속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응답자로 하여금 같은 학교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3명만 적고,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각 문항에 대해 이들 3명의 친구 각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바에 따라 3번을 반복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설문응답시 상정한 친한 친구의 구조적 특성이 '둘만이 친밀하게 지내

는 단짝 친구'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구성된 무리속에 있는 친구'인지 불분명하여, 교우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지각되는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밝혀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다양한 구조적 측면을 밝히고, 교우관계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그 관계에서 지각되는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같은 제한점을 전제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으며, 이들 세 측면이 청소년의 성별, 학년 등의 변인이나 학교생활에의 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규명해 보았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생활을 지도할 때에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교우관계 및 우정의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인 특성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가 항상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하연(1991). 청소년의 자아 개념·포래집단에 대한 동조·비행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경(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태(1991). 청소년기의 우정관계 발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환(1981). 학교의 물리적 환경변인이 아동의 정서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필(1990). 학업우수아와 부진아의 욕구 및 성격 특성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휘숙(1996). 청년심리학. 서울 : 장승.
- 조정숙(1995). 국민학교 어린이의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 적응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

- Berndt, T. J. & Miller, K. E.(1992). Relations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to their friends' characteristics.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재인용]
- Berndt, T. J. & Hawkins, J. A.(1992). Effects of friendship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junior high school.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재인용]
- Berndt, T. J., Hawkins, J. A., & Hoyle, G. G.(1986). Changes in friendship during a school year: Effects on children's and adolescents' impressions of friendship and sharing with friends. *Child Development* 57, 1284-1297.
- Blyth, D. A., Traeger, C.(1988). Adolescent self-esteem and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In S, Salzinger, J. Antrobus, & M. Hammer(Eds.), *Social networks of childre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Publishers.
- Berndt, T. J. & Perry, T. B.(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40-648.
- Berndt, T. J. & Keefe, K.(1992). Influence of friends' characteristics and friendship features on adolescents' behavior and adjustment.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재인용]
- Bukowski, W. M., Boivin, M., & Hoza, B.(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 471-484.
- Coleman, J. C.(1978). Current contradictions in adolescent the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1-11.
- Dekovic, M. & Meeus, W.(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 163-176.
- Furman, W. & Adler, T.(1982). The friendship questionnaire. University of Denver.
- Mounts, N. S. & Steinberg, L.(1997). An ecological analysis of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grade point average and drug us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15-922.
- Ma, H. K., Shek, D. T. L., Cheung, P. C., & Lee, R. Y. P.(1996). The relation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to personality and peer relationships of Hong Kong Chinese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7 (3), 255-266.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owlins, W. K.(1994). *Friendship matters : Communication, dialectics, and the life course*. NY: Aldine De Gruyter.
- Wentzel, K. R. & Erdley, C. A.(1993). Strategies for making friends: Relations to social behavior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adolescence. *약 Developmental Psychology* 29(5), 819-826.